

# 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중국출신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채임

(울산대학교)

##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가치관의 개념 및 특성
  - 2.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 3.2 자료수집 및 분석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제언

<Abstract>

**Lee chae im.** 2018. 1. 24. **A Study on the Value of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155-178. The growing number of immigrant women in the globalization trend has created a new culture form in our society. This study aims to take a look at the values of Chi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living in Korea, and to establish what they seek as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and to be an important indicator of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In an in-depth interview with four Chinese-immigrant women residing in the area of Busan, individual rituals, social ceremonies, and

cultural rituals related to value topics were conducted. They have experienced conflicts in real-life issues with the difficulties of communication and cultural differences in adapting to the Korean lifestyle, but have turned out to be positively acceptable. The most important assumption in family life was the unity and health of families, and the decision-making of the home was respected. The satisfaction of life showed a higher result than a Korean feeling of 8 points in the 10 point. To succeed in the Korean society, the Society has prioritized its ability to be more realistic and preferred a technical profession. by and large their cultural awareness of Korea was low they have kept in touch with their own societies and established identities only by cell phones, and it turned out to establish a transnational identity while bonds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study, it is hoped that the direction of the marriage will be able to further strengthen the value of education based on th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women's lives and the value of change.(University of Ulsan)

[Key words] marriage immigrant women, values, rituals, multi-cultural societies1.

## 1. 서론

한국은 21세기를 맞이하여 국가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고,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217만 명에 이르며, 이중 결혼이민자는 15만 명으로 중국 결혼이민자는 전체 37.1%를 차지하고 있다.<sup>1)</sup> 아시아 국가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문

---

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7년 12월

화양식을 만들어 내고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결혼은 단순히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들을 끌어들이는 우리 사회의 요인이 그들의 요구와 부합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단지 그들만의 문제이거나 책임일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 영위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사는 결혼이주여성<sup>2)</sup>들의 가치관을 살펴보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문화사회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미래 상태를 예측하여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가치에 관한 연구는 한 개인 내지는 전체가 욕구하거나 추구하는 바에 관한 것으로 그 사회 상황을 반영하거나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 변화 추이가 어떠한지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다문화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에 중요한 전제라고 본다.

우리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길지 않은 기간의 경험 속에 수립되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및 질적 조사를 강화하여 국가 수준의 대단위 중요도·만족도 조사 실시를 하여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sup>3)</sup>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를 자신의 꿈과 생존을 이룰 수 있는 제 2의 터전으로 기대하면서 이주해 오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주민에 대한 법제도적인 한계, 다수 시민의 소수 인종에 대한 차

---

2) 이 연구에서는 법무부의 기준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포함하여 결혼 이민자는 결혼을 통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단기, 1년 이상의 장기 이민자를 포함하여 이들 중 여성과 한국국적 취득자녀를 포함한 용어로 사용한다.

3) 최정순(2014), 다문화 사회 전환에 따른 한국언어문화교육의 정책적 과제.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101권 0호, pp.401-436

별, 가족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가정문제, 공동체에서의 일방적인 배려와 편입의 강요를 겪으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결혼과 가족제도는 전통과 관습에 절대적인 영향아래 있다. 이런 현상은 국제결혼과정에서도 여전히 남아 배우자의 국적을 한정하면서, 유교적 영향권에 있는 동남아 여성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혈통과 규범적 질서를 규정하고 우리의 결혼제도나 사회제도를 규정하면서 특히 남녀 역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결혼생활의 갈등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급증하는 결혼만큼이나 이혼율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제결혼을 통해 맺어지는 가족 안에 다양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들의 의식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은 단기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부족하고 이질적인 배우자의 문화나 관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 더욱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문화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가정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4)</sup> 두 개 이상의 다른 문화적 집단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타자를 수용하여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문제이다.

지금 한국에는 다문화사회라는 새로운 사회구조와 근대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잘못 적용된 자본주의 사회구조 간의 격심한 충돌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인종이

---

4) 김연수. 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21권, pp.217-252

나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가치체계이다.<sup>5)</sup> 이는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집단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로 결혼이주여성의 새로운 가치관 형성의 문제 또한 다문화 사회를 함께 살만 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 안으로 쉽게 동화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여성이 혼인과 출산을 통해 남성 배우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동화될 것이라는 부계 가족 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약화되고 있다. 상이한 인종·문화·종교를 가진 ‘타자’와 ‘나’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이해의 경험을 확장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가치관문제와 인식의 방향을 제시할 새로운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넘어서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의식, 사회의식, 한국에 대한 인식, 문화 및 가치관을 주제로 한국생활 거주기간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조사 연구하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을 통해 가족 안정성과 사회적응 정도를 알 수 있고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수립 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여성정책 분야의 귀중한 밑거름으로서 가정의 안정과 사회적응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2. 이론적 배경

### 2.1 가치관의 개념 및 특성

---

5)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2), 72-103

심리학에서 가치란 일반적으로 의식구조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의식구조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의를 하자면, 인간 대 자연, 인간관계 등에서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개념으로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Kluckhohn, 1962)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가치를 생태학적, 제도적 조건의 산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생태학적 제약요인은 집단 간 가치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생태학적 요인이 개인의 생활 기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분명한 가치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사회과학 내 다양한 분야의 가치에 대한 정의를 종합했을 때, 가치는 행위 또는 상태에 대한 인간의 선택이나 판단의 기준 또는 표준과 관련된 신념, 아이디어 또는 태도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가치관에 대해 Rokeach(1973)은 태도나 가치보다 더욱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개념으로 인간 행동과 사고에 질서와 방향을 부여하는 원칙인 동시에 중심적인 신념이라고 하였다. 즉 가치관은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이며, 개인이 가진 신념체계 가운데 중심적인 것이며, 또한 개인이 인간존재의 목표 상태에 대해서 추구해야 할 것과 회피해야 할 것을 구분해 주는 준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관은 행동의 표준이나 지침, 선호의 기준 및 형가의 기능을 가진다.

정범모(1976)는 가치관을 여러 가지 인간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가치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고 있다. 첫째, 가치관은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한다. 즉 사람이 무엇을 원하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한다. 둘째, 가치관은 사람의 지각과 해석을 크게 좌우한다. 즉 사물과 장면과 상황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한 관점을 형성하게 한다. 셋째, 가치관은 사람들의 삶의 만족 및 삶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넷째, 가치관은 사람들이 부딪치는 문제에 대한 좋고 나쁨의 평가 기준을 제

공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게 되며 이 일에 대해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가치관은 이 평가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Kluckhohn와 Strodtbeck(1961)에 따르면, 가치관은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방향성을 갖는 평가 틀로서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 질서(일관성)와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은 일종의 “좋다”, “나쁘다” 라는 평가적 요소를 가지며, 행동의 방향과 동기에 영향을 주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인간행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행동의 직접적인 압력보다는 일종의 중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의 형성 및 발달과 관련하여 최근 대표적인 이론적 설명은 Mckinney(1973, 1975) 등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 지각적 해석이다. 그는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행동 주체인 당사자의 ‘환경에 대한 지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능동적인 주체자로서의 인간은 주위환경에 있는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받아들이며, 이에 대하여 환경은 또 다시 그 행동의 결과를 자기 자신에게 피드백하게 된다. 이때 환경의 피드백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된다.

개인의 가치의 측정과 관련하여 콘버스(Converse, 1964)는 신념체계는 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확고한 태도가 없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답을 하거나 편리한 대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측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자료 확보를 위해 심층면접과 설문지를 병행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모국과 다른 주위환경의 자극으로 의식의 변화에 급격한 영향을 받아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며, 모국에서 형성된 정체성은 한국문화 가치체계의 해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의 연구는 다문화사회 통합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 2.2 선행연구

국내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최근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작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결혼이민자들의 인권과 문화적 차이의 갈등 및 국제결혼의 문제점과 원인(이혜경, 2005; 김오남, 2006)에 관한 연구와 문화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이영애, 2010; 이지영, 2012)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제 역시 제한된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실태조사 수준에 머무르는 연구 결과들이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 적응과정 중 사회와 가정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적응 방안을 제시할 뿐 이들의 한국 문화 인식을 기초로 한 가치관에 대한 모색은 미흡하다.

박정희(2014)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로서 자율적 가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박선규(2008)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 편견과 시선이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시민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이들이 처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고려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2007: 172-173)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만족 수준은 10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6.76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 후속연구를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

원서진 외(2011)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결과를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가치관과 의사결정권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가족 내 의사결정권이 남편에서 편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부부간의 공동결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가부

장적 가치관이 약화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기존의 문화적 및 사회적 특성 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의식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광자 외(2001)는 정보화 사회에서 한국인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에서 부부관계는 점차적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 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들 중 부부간의 의사결정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 74.0%로 절대다수이다.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그 다음이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가족들이 부부관계에서 보다는 주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생활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중국과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언어와 풍습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한국인과 유사한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들이 한국 사회의 사회구조망 안에서 개인의식, 사회의식, 문화의식이 어떠한 변화 과정을 형성해 나아가는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으

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생활하는 중국출신 여성이다. 법무부 통계<sup>6)</sup>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출신국은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이 37.6%, 베트남 27.4%, 일본 8.6%, 필리핀 7.6% 순으로 상위 1위로 중국출신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연구 대상자를 중국출신 여성으로 한정하여 연구 조사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sup>7)</sup>의 협조를 구하고, 이 기관을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자발적으로 심층면담 참여에 동의한 중국출신 4명(한국계 중국여성 2명 포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16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접시간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약을 두지는 않았으며, 참여자에 따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한 면접 내용을 문서화하여 범주별로 제시하였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대상자를 위하여 중국어로 번안된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한국어 실력을 갖춘 대상자는 한국어로 된 자료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면담 자료는 가치관 주제와 관련된 정부보고서<sup>8)</sup>, 연구논문<sup>9)</sup> 등의 자료를 의도에 맞게 해석하여 조항을 준비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의 변화가 거주기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 거주기간을 기준<sup>10)</sup>으로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심층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면접방식은 반구조화된 면접법을 활용하였다.

반구조화된(semi-directive) 방식이란 개방형 질문으로 답변의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놓되 연구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보충하거나 이야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면접진행과정에서 연구자의 부분적인

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7년 12월

7)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8) 2008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참고

9) 이광자 외(2001), 현대 한국사회와 가치관의 변화: 여성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10)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3년 주기임을 참고하여 2년 미만과 5년 이상을 기준으로 함.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Paille & Minchill, 2003). 이 방법은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을 특정한 질문형식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면접과정에서 개인적인 경험과 그 의미 등을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이민경 2013, 재인용). 또한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면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라포 형성을 위해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면담에 참여한 인원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 4명으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며, 학생을 제외한 대상자 전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자 A는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경우로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참여자 B의 경우는 재혼으로 중국에서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요식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참여자 C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1명 있으며, 중국인을 상대로 화장품 판매를 한다. 참여자 D는 한국국적 취득을 하였으며, 초등학생 자녀 1명이 있으며 통역사로 활동하며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상자 중 참여자 A, B는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고, 참여자 C, D는 6년 이상으로 조사 연구를 통해서 거주기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1 심층 면접 대상자>

대상자	연령	한국 거주기간	직업	결혼
연구참여자 A	24(한국계)	1년 8개월	대학원생	초혼
연구참여자 B	37	2년	서빙	재혼
연구참여자 C	37	6년	판매원	초혼
연구참여자 D	45(한국계)	12년	통역사	초혼

### 3.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을 토대로 가치관을 개인/가족, 공동체, 사회 수준으로 구분하고 관련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결혼이주여성 대상에 맞게 개인의식, 사회의식, 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모든 과정은 질문하기와 지속적으로 한국인의 가치관과 비교하기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2 개인의식과 관련된 조사 내용>

대분류	소분류
가정생활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것/가족간 유대감/전통적 가족관념/아이행복과 부모존재
결혼 및 부부생활	결혼필요성/배우자 선택 시 중요요소/가정 내 의사결정권/이혼인식
부모와 자녀	희망자녀 수/아들딸 선호도/자녀입양/부모의 자녀체벌
행복	삶의 행복도/행복에 있어 분야별 중요 정도/분야별 행복도

1.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세요.

2. 고민거리가 있을 때, 주로 누구를 찾습니까?

3. 배우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 만약 자녀를 한 명만 가져야 한다면 남자 아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5. 삶에서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시는데 다음 각각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생활/자녀/배우자/건강/재산/직장생활/문화·여가생활

<표 3 사회의식과 관련된 조사 내용>

대분류	소분류
사회일반	경제수준 대비 사회복지 수준/노후대비 방안/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태도/한국 남녀평등 정도/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사회적 자본	가장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사람에 대한 신뢰도/이웃 경조사 참여 정도/ 단체 참여 정도/ 단체 활동 참여가 개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교육과 직업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교사 체벌에 대한 공감도/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자녀가 갖기를 원하는 직업

1.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2. 한국사회는 부정부패가 많다.
3. 한국의 교육환경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 한국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이다.
5. 평상시 이웃과의 관계, 사회단체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표 4 문화에 대한 인식>

대분류	소분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한국문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한국 문화나 브랜드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문화여가활동 빈도/문화여가활동 선호도/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나 운동이 있는지 여부
매체에 대한 인식과	세상 소식을 주로 얻는 매체/가장 신뢰하는 매체

이용 행태	/매체 이용 빈도
-------	-----------

1. 한국에서 자랑할 만한 문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문화 여가 활동은 무엇입니까?
3. 인터넷을 통해 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이메일/홈쇼핑/티켓예매/정보검색/메신저/커뮤니티/게임/사이버교육/음악·동영상정보
4.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5.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 4. 연구 결과

인간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되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상호 밀접한 영향 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변화가 급격할수록 서로 이질적인 세대의 경험으로 인해 세대간 의식과 가치관, 행동양식이 다르게 나타난다(조성남 외, 2000). 본 연구의 심층면접은 특정 국가 여성들의 한국 거주 이전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그들의 한국 입국 이전의 일상과 생각(가치판단)을 나누려는 많은 시도를 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처음 한국으로 이주해 올 당시, 본국에서 한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와는 다른 경제적 위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선망과 물질적인 여유로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에 갈등을 경험하지만 긍정적

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보였다. 특히 한국계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과 민족적 동질성에서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 양상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인과 같은 동포로 여기지만 한국인은 중국동포는 중국인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편하의 시선이 존재한다고 여겨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었다.

직장생활에서 직무조건과 보수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로 차별받는 현실을 경험하며 이중고의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좋고, 여러 방면에서 생활 조건은 선진화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한국 국적 취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은 높은 교육열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불안감으로 가족과 함께 모국으로 이주할 의지를 보이는 대상자도 나타났다. 일부 대상자는 한국에 처음 올 때 기대한 경제적 풍요로움에 대한 열망을 여전히 가지고 더 나은 직업에 희망을 걸고 한국에서 터전을 갖고 사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본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의 가치와 경험에 치중한 한국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개인의식, 사회의식, 문화의식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4.1 개인의식

연구참여자 B : 가족끼리 서로 마음이 통할 때 가장 행복해요.

연구참여자 c : 저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남편보다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해요.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얘기해서 답을 얻을 때가 많아요.

연구참여자 D : 회사나 가족 모임은 남편과 의논해서 결정하지만 생활비 지출은 제가 알아서 해요. 아이 학원도 제가 생각해서 결정해요.

연구참여자 A : 건강한 아기면 아들, 딸 상관없어요. 자녀는 한 명이면 돼요. 한국에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입양도 나쁘지 않아요. 남편과 생각이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결혼이주여성은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족 간의 화합과 건강이라고 응답했다. 연구자가 가족의 경제적 안정이나 성공, 가정 내 질서와 권위 등 다들 분야도 제시하였지만 대상자들은 모두 화합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가족 간의 유대감에 관한 질문에서는 고민거리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가족들에게 의지(依支)는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意志)가 보였다.

결혼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대상자 전원 ‘가능한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A의 경우 미혼일 때는 결혼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나 현재 결혼생활에 높은 만족도로 오히려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격’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국제결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대화를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반증한다.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의 경우 ‘성격’의 중요도는 감소 추세인 반면 ‘경제력’이나 ‘장래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sup>11)</sup>로 볼 때 결혼이주여성과는 상

11) 2008년 한국인의 의식 · 가치관 조사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 (단위: %)			
	1996년	2001년	2006년	2008년
성격	73.0	66.0	54.8	55.0
경제력	5.4	10.7	15.6	17.3
자라온 환경	9.2	11.7	12.7	11.5
장래성	5.4	6.7	7.2	9.9
종교	3.4	1.7	4.1	2.1
외모/성적매력	0.9	1.2	1.4	1.3
학력/지적수준	1.2	0.7	1.4	1.1

이한 점이 있다. 연구대상자A는 결혼 전 배우자 선택 시 한국에서 풍족한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로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경제력’ 보다 ‘성격’ 이 우선시 된다고 응답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 내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자B의 경우는 남편 월급으로 한국 금융권의 금리가 낮아 중국 은행권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남편이 자신에게 경제권을 맡긴다고 말했다. 가족행사나 모임에서 아내의 참가 여부 또한 아내의 의사가 존중되고 있다.

자녀선호도에 대한 인터뷰에서 자녀를 한 명만 가져야할 경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중 선호하는 성을 물어본 결과로 대부분 ‘상관없다’ 는 응답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남아선호현상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대상자D의 경우는 태아의 성별에 따른 선택적 출산에 찬성하며 남자 아이를 선호한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 10년 이상 장기거주자로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본인 삶에 대해 느끼는 행복에 대한 응답으로 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서 8점으로 한국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6.9점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만족이 되지 않는 이유는 취업,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이 원인으로 가정생활에서 본인 직업의 유무와 자녀양육이 행복도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연구대상자D의 경우는 다문화가정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다각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자녀와의 관계가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한국여성과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취미/기호	0.2	0.9	0.6	0.7
기타	0.5	0.4	2.3	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 4.2 사회의식

연구대상자D : 한국은 능력 있으면 성공해요. 취직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판시(연줄)중요해요. 아는 사람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연구대상자C :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돈 벌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한국 사람과 다르잖아요. 대우가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한국 국민이 아니잖아요.

연구대상자A :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한테 대부분 친절해요. 하지만 이중성이 있어요.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안 보이면 나쁜 말도 많이 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사회이식에 대한 응답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연줄이나 집안 배경보다는 본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고 믿으며 한국을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건전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현실적인 인간관계보다 본인의 능력을 우선시하였고 기술직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바라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이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진술에 얼마나 공감하는가의 질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의 정당성을 한국에 정주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성은 한국에 정착하여 사는 외국인이지만 근로자의 경우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이기에 한국 근로자와 다른 대우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인의 의식 조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에서 ‘그렇다’ 라는 응답이 76%인데 반해 결혼이주여성의 의식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서 한국인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외국인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이면에는 폐쇄적인 태도가 있음을 인식했으며 이는 한국인의 의식 조사결과에서도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해 폐쇄적이다 63.2%'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빈도를 알기위한 질문에서 이웃의 경조사 참석은 가정생활의 일부분으로 갈등을 빚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연구대상자D의 경우는 직장생활 6년 차로 경조사 참석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과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중요성에서 갈등을 경험하면서 경조사 문화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 사회생활과 유사한 인간관계 패턴이 형성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 4.3 문화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자B : 한국 문화하면 드라마가 생각나요. 중국에서도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한국에 유명한 문화가 뭐예요?

연구대상자A : 한국에 있지만 중국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연락도 해요. 중국친구들 모임에 가면 한국 생활에 도움이 돼요.

연구대상자C : 남편은 일요일도 출근하는 날이 많아요. 여행을 가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쉬는 날에도 남편은 TV를 많이 봐요.

응답자 전원이 대체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관심이 저조하고 현재 향유하고 있는 대중문화나 문화여가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동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인은 금전적인 요인과 시간적 요인으로 부여한다면 현실적으로 남편의 직장생활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매체는 TV와 인터넷으로 신뢰 수준이 높고 한국인의 여가생활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국의 자랑할 만한 문화 브랜드로는 드라마, 가수를 꼽았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한글, 김치에 대한 우수성은 결혼여성이민자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느끼고 있지 않았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 문화 브랜드로 한글과 김치라고 응답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가 우수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응답이 보였다.

세상의 소식을 접하는 매체로는 휴대폰 사용으로 응답했다. SNS를 통한 사회연결망은 강한 사회적 자본으로 개인에게 보다 긍정적인 효과로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로 작용했다. 이러한 연결망은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이나 관습을 유지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자C, D의 경우에서 다양한 직업 종사자와 가까이 알고 지낸다는 응답에 따라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사회연결망이 커지는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채팅으로 모국의 가족과 소통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초국적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에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안이 요구된다.

사회단체활동 참여는 지역사회 내에 형성된 동포 모임으로 한국 사회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생활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응답자 전원 참여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 생활을 하면서 동변상련의 입장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며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우면서 적응을 도모한다. 연구대상자D의 경우는 종교단체의 참여가 가족관계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자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 결론 및 제언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점차 새로운 문화양식을 만들어 내고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까지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갈등, 정체성의 혼란, 등 이러한 문제는 한국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특히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현재 가장 높은 비율로 한국에 정착하여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구성원이다. 한국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가치관이 어떻게 인식되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다문화사회에서 이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소중한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을 통한 결과에서 한국인과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태도에서 개인의식과 사회의식, 문화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과 대동소이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한국인과 동화되어 가는 의식이 드러났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른 표면적인 의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구대상자 전원 한국 사회에 주변인이 아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현실의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수의 연구대상자의 결과로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이번 조사연구는 매우 제한된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인식하는 한국에 대한 인식의 조사결과가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이민자 전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 이주민 형태, 대도시와 농촌 거주 등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국적 범위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태도와 인식 및 변화된 가치에 따라 어떤 가치교육<sup>12)</sup>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이 가능하리라 본다. 후속 연구로 가치관의

---

12)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박정희, 「변화와 포용으로서의 문화사회에 대한 가치교육」 『철학논총』 78 (2014)이 있다.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를 활용하여 이주민의 문화적 적응과 사회 통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시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참고문헌

- 김성금(2015). 탈근대적 가치탐색을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성 설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오남(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권 3호, 한국가족학회. 63쪽~106쪽.
- 문화체육관광부(2013).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의 이론적·방법론적 틀 구축에 관한 연구.
- 박기관(2009). 다문화시대 결혼이민자의 실태와 정책과제.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87쪽~106쪽.
- 박정희(2014). 변환과 포용으로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가치교육,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78권, 새한철학회. 327쪽~346쪽.
- 손동현·홍경남·백송이(2013). 한국 대학교 가치관 교육의 개선 방향에 관하여, <교양교육연구> 7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59쪽~294쪽.
- 이광자 외(2001). 현대 한국사회와 가치관의 변화: 여성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16권,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3쪽~22쪽.
- 이민경(2013). 집착지대에서의 갈등과 협상, <한국교육학연구> 19권 2호, 안암교육학회. 219쪽~247쪽.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권 1호, 한국인구학회. 73쪽~106쪽.
- 임경희(2014). 결혼이주여성의 선별적 편입과 배제 그리고 유교적

- 공존의 가능, <여성연구논집> 25권,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81쪽~101쪽.
- 원서진·송인옥(2011).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권 2호, 한국가족복지학회. 95쪽~113쪽.
- 정범모(1976). 『가치관과 교육』, 서울: 배영사.
- 정현주(2009). 경계를 가로지르는 결혼과 여성의 에이전시:국제결혼이주연구에서 에이전시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권 1호, 한국도시지리학회, 109쪽~121쪽.
- 조성남·윤옥경(2000).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사회과학연구논총> 5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03쪽~135쪽.
- 차윤정(2015). 한국 생활의 경험과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의식 변화, <코기토> 77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23쪽~251쪽.
- 최정순(2014). 다문화 사회 전환에 따른 한국어문화교육의 정책 과제, <새국어교육> 101권, 한국국어교육학회. 401쪽~436쪽.
- 한덕웅·이경성(2003). 한국인의 인생관으로 본 가치관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권 1호, 한국심리학회. 49쪽~67쪽.
- 한상철·김영한(200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인생관, 가정관, 교육관, 직업관, <교육학논총> 24권 1호, 대경교육학회. 55쪽~79쪽.
- Kluckhohn, F. R, Strodtbeck, F. L.(1961).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 N. Y: Row, Peterson.
- Mckinney, J. P.(1973). The structur of behavioral values of college student. *Journal of Psychology*, 85, pp.235-244.
- Mckinney, J. P.(1975). The development of values: A perceptual interpretation. *Journal of Personailty and social Psychology*, 5, pp.801-807.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e.

필자 소개

성 명 : 이채임  
소 속 : 울산대학교 국제교류처  
전자우편 : sujar2010@daum.net

투고일: 2018. 1. 24 / 심사일: 2018. 2. 1 / 심사완료일: 2018. 1. 31